

출판계의 체질 변화

김병익

문학평론가 ·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문화 자체까지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출판계는 그 변화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지난 11월 용평에서 열린 출판협회의 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 주제 '사회발전과 출판'에 대해 품은 나의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런데 그 토론을 마치고 난 후의 느낌은, 10여년 전의 이 비슷한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출판이 사회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그래서 도서문화가 사회문화보다는 앞서 있다는 의식과 전제와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출판계가 출판 외부의 수준보다는 밀돌고 있다는, 자칫하면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소감이었다.

이렇게, 오히려 역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킨 것은 세가지 점 때문이었다. 참석한 많은 출판인들이 특히 출판노조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조합의 추세와 실제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라는 점; 상당히 폭넓게 전파되고 있는 컴퓨터 조판 및 업무의 전산화 경향에 대해 일부 발행인들이 거의 무지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 참석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구세대식의 경영인이며 젊고 의식있는 세대의 출판인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출판계의 시대착오적인 상투성, 무기력한 안이성, 체질개선을 회피하는 보수성의 구체적인 사례들일 것이다.

근래의 사정으로 비추어보아, 출판계의 이러한 자세가 여전히 지탱된다면 우리 출판문화의 전도는 매우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회적 변화 부면의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출판계 내부에서도, 출판인의 의식·태도·전략·체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강요하는 현상이 근래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저작권법 개정과 국제저작권협회의 가입 및 개정될 출판법 등등의 법적·제도적 체계화는 출판인의 문화적 소명감 제고와 함께 출판전략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며, 예상되는 출판노조의 확산은 기획·편집의 전문성과 경영의 합리화 도모와 더불어 사주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출판기술의 발전은 또한 출판작업의 전반적인 혁신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응하지 않을 때 사양화될 것임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의 출판실적이 지난 해에 비해 답보 내지 저회하고 있음은 우리의 도서생산과 공급이 어떤 한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면서, 그것의 타개책 강구를 절실하게 만든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80년대의 마지막이며 90년대를 예비할 새해에는 출판계와 출판인 전반의 과감한 변모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출판사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과 편집을 분리시키는 문제로부터 고급한 출판전문인을 양성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연구개발비를 0.014%에서 대폭 인상하는 문제로부터 출판산업의 자유와 함께 책임성도 고조시켜야 하는 일까지, 사회적 인식의 거대한 변화에 보조를 같이하면서 제작·경영의 과학화를 대담하게 수용하는 일까지, 출판계의 폭넓은 쇄신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며 체질의 강화이고 태도와 전략의 변환을 뜻하는 일이다.

세모 단상 2 일본에서 날아온 뜻밖의 소포/李萬甲

앞서가는 출판과 이윤추구/洪思德

좌담 4 '책의 문화' 현단계를 점검한다

전병석/최재선/지성환/이희연/윤태희/
이약실/정병규

송년특집 10 자유로운 학문연구, 풍성한 결실

—1988년의 각 분야 '성과'를 점검한다

문예이론·평론/金聖坤

詩/金柱演

소설/정현기

국어학/李秉根

고전문학/蘇在英

철학/李明賢

한국사/李萬烈

역사이론·서양사/李光周

과학/송상용

예술일반/李逸

문학시평 16 문학이론의 새 지평 제시한 '바흐쎄' /權五龍

특별기획 17 '출판저널'이 뽑은 1988년의 책

초점 49 3개 전문대에 '출판관' 생긴다

토포 50 '충격'과 '격동'의 1988년 출판계

문단시평 52 문학평단에도 '세대교체' 바람

화제작의 주변 53 南美 노래운동의 가수 빅토르 하라

세계의 출판 54 「뉴욕타임스」가 뽑은 88년 美 최우수도서·外

56 신간목록

59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데스크 칼럼 60 대형서점의 대명사는 '문고'인가

60 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

표지 사진/구본창

알림

'송년특집호' 增面 발행

「출판저널」 이번 호(제 32호)는 60면으로 증면, '송년특집호'로 발행합니다. 다음 신년호(제 33호)는 연말연시의 정례휴가에 따라 1988년 1월 5일자로 발행되오니 諒知하시기 바랍니다.